

# 고상한 녀

김학철

일본·고오베(神戸)시에 <무궁화회>라는 단체가 있다. 그 취지를 불작시면——

본회는 일본인들의 단체로서 조선(사람)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뿌리깊은 일본사회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활동을 전개한다. 무궁화는 조선에 유명한 꽃으로서 일본식민지시대에 완강하게 끈질기게 벌어졌던 독립운동도 이 무궁화로 상징이 되므로… (이하 생략)

무궁화회에서는 정기적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모임을 가지며 또 그 활동의 일환으로 격월간 <무궁화통신>을 간행하고있다.

무궁화회의 주사(책임일군) 히다 유우이찌(飛田雄一)씨가 최근에 보내온 <무궁화통신>들을 받아서 읽어보고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알고보니 히다씨를 비롯한 무궁화회의 성원들은 모두 낡은 일본국민정신의 반역자들이었다.

일본이 지난날 조선을 강점하였던것은 천적으로 잘못이다. 죄악적이고 또 범죄적이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서까지도 조선사람을 차별대우하는것은 천부당만부당할 일이다.

이렇게 그들은 웨치고있는것이다.

<무궁화통신>은 일본제국주의의 조선강점을 폭로규탄하고 또 조선인민의 영웅적인 항쟁을 구가하는 글들로 가득차

있다.

특히 나를 놀라게 한것은 호리우찌 미노루(堀内稔)씨의 <일제하 원산, 평양 지구에서의 무정부주의운동>이라는 글이었다.

나는 11살때, 원산노동회(적색로조)와 원산청년회(무정부주의자련맹)이 충돌하여 일대 란투를 벌이는것을 목격한바 있다. 목격이라느니보다는 판전(觀戰)이라는게 더 나으리만큼 가까이에서 자초지종을 다 지켜보았다. 거기서 받은 인상이 어찌나 강렬하였던지 나는 50여년이 지나서 쓴 장편소설 <격정시대>에다 그 장면을 재현시키기까지 하였다. <조시원>이란 실재인물의 이름은 그대로 밝혀서 쓰고 또 <김정희>란 실재인물의 이름은 <한정희>라고 고쳐서 썼다.

호리우찌씨의 글은, 11살 먹은 아이로서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었던 그 충돌의 태맥(來脈)을——6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내 눈앞에다 생생히 펼쳐놓아주었다.

무궁화회에서는 또 조선(사람)에 관한 서적들을 수태 출판하였는데 그중에는 와세다대학의 교수 오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선생이 번역한 <중국의 조선축(연변 조선축자치주개황)>도 틀어있다. 이 책은 호화판 양장제본으로서 그자체가 곧 정교한 미술품이다. 해서(該書)는 자비출판인데 역자인 오오무라선생과 무궁화회가

그 비용을 반반씩 나누어 부담하였다.

무궁화회에서는 경상적으로 조선말과, 조선사연구회도 가지며 또 조선에 관한 음악, 무용, 미술, 연극, 영화 등도 셀새없이 소개, 전시, 공연하고있다.

일본·도오쿄(東京)에는 또 <종소리회>라는 일본인들의 단체가 있는데 그 취지도 역시 무궁화회와 마찬가지로 조선(사람)에 대한 일본인들의 편견에 도전하는것이다. 종소리회에서 간행하는것은 <스크럼>이라는 월간잡지인데—스크럼이란 영어로서 여럿이 팔을 짝 끼고 뭉친다는 뜻이다.

전일 종소리회의 주요성원인 다카야 나기도시오(高柳俊男)씨에게서 <시사만화에서 본 일본인의 조선인식>이라는 저서를 증정받았는데 그 내용인즉 <스크럼>에 다 12달동안 련재한 계열문장을 묶은것이였다. 65쪽의 시사만화를 곁들인 그 문장은 글자그대로 일본인들의 그릇된 조선인식에 대한 체적질이였다. 신랄한 체적질, 사정없는 체적질이였다.

특히 그중의 <독법운동을 적시하여 만들어낸 <불령선인(不逞鮮人)>상(象)>은 압권(壓卷)이였다. <압권>이란 같은 책 가운데서 제일 잘 지은 글이라는 말이다. 나도 지난날 그런 <불령선인>의 하나였던 까닭인치는 몰라도—읽으면서 피가 끊어오름을 느꼈다.

다카야나기씨는 고등학교시절까지도 조선문제에 전연 무관심하였었는데 대학시절에 우연히 호기심으로 계간잡지 <삼천리>를 구독한데서 인생항로가 급전을 하여 조선(사람)을 위해 분투, 헌신하게 되었다는것이다. 다카야나기씨는 현재 동경대학교에 재직하고있다. 그리고 <삼천리>는 일본에서 일어로 간행되던 진보적 조선인들의 종합잡지.

상술한 다카야나기씨와 히다씨는 다 조선말을 할줄 알고 또 조선글도 쓸줄 안다. 오오무라교수에 비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서도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점은 그분이 다 <밀지는 장사>를 하고있다는것이다.

<무궁화회>, <종소리회>, <무궁화통신>, <스크럼>...이들은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 봉사성적단체, 순 봉사성적간행물들이다.

오오무라선생은 제 노력, 제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의 <개황>을 번역출판하였을뿐아니라 당당한 대학의 교수님이 그 책들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팔러 다니기까지 하였다. 널리 퍼기 위해서였다. 우리 중국의 조선민족을 일본에다 널리 선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무엇때문에 이런 먹물알이 하나도 없는 일에 기꺼이 달갑게 종사들을 하고있는가.

더 말할것도 없이 그것은 숭고한 이상과 그에 따르는 신념의 문제일것이다. 신념이란 자신이 체득한 사상과 견해에 대한 굳은 믿음과 그것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강한 지향이 결부된 사상의식을 말하는것이다. 까닭없이 차별대우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 부당한 처사를 하는 사회집단 및 위정자들에 대한 분개심, 그리고 정직한 인간으로서의 정의감...이런것들이 그 직접적인 동기라고 보아서 틀림이 없을것이다.

이렇듯 고상한 녀을 지닌 이웃나라의 벗들을 우리가 어찌 뜨겁게 대하지 않을것인가.

미국이나 남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흑인들의 해방운동에 백인들이 가담하여 함께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텔레비전의 형광판을 통해서도 다들 보았다. 그 백인들도 역시 고상한 녀을 지닌—인간다운 인간들이었다. 오오무라, 다카야나기, 히다 제씨와 같은—인간다운 인간들이었다.

자사자리한 비렬한들은 우리 이 지구의 주인으로 될수 없다. 고상한 녀을 지닌—인간다운 인간들만이 우리 이 아름다운 지구의 어엿한 주인인것이다.

88년 8월